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혁명적으로 개선하는것은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의 요구

리 명 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당 정책관철의 제일기수인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혁명적으로 개선할것을 요구한다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인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혁명적으로 개선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은 새로운 활력에 넘쳐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의 투쟁열의는 대단히 높으며 여기에 일군들의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가 안받침되면 우리에게 점령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다.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의 어깨우에 당정책의 운명이 놓여있고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따라 총진군대오의 공격속도가 좌우된다.

오늘의 격동하는 시대에 우리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당의 사상과 령도를 어떻게 받들고 어떠한 사업기풍과 일본새로 일하는가 하는데 따라 우리 혁명위업의 성패가 좌우되게 된다.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혁명적으로 개선하는것이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의 요구로 나서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인 우리의 일군들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일군들이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이라는 가장 큰 믿음과 기대를 안겨주시였다.

우리의 일군들이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처럼 송풍기로 로안에 바람을 불어넣어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듯이 당정책관철을 위한 정치사업의 된바람을 일으켜 당이 지펴준 대고조의 불길이 모든 부문, 모든 초소마다에서 더욱 거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사람들의 심장속에 혁명의 피, 애국의 피가 끓어번지게 할수 있다. 당정책관철에서 일군들의 대담한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가 안받침되면 점령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다는것은 철의 진리이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앞당겨오기 위한 당정책의 운명은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우리의 일군들이 격동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업방법과 일본새부터 혁명적으로 개선하여야 당정책관철의 앞장에서 생ن길을 헤쳐나가는 척후병, 혁명대오를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기관차, 기수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

지난해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기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이룩된 눈

부신 성과들에는 총진군대오의 기수가 되어 대중을 앞장에서 이끌어온 우리 일군들의 헌신적투쟁도 깃들어있다. 전형단위들의 경험은 일군들이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대중의 심장을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로 끓게 하고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때 대비약, 대혁신이 일어나게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일군들은 높은 혁명적전개력을 지니고 전투과정에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하며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 어깨를 들이밀고 돌격로를 열어나가야 한다. 인민군 대지휘관들처럼 격렬한 전방에 지휘부를 전개하고 진격의 나팔수가 되어 현장지도, 현장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공세적으로 힘있게 벌리는것은 우리 일군들의 중요한 임무이다.

사람들이 맥을 놓고 주저앉았을 때에는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싸우는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안겨주고 남을 쳐다보는 기색이 보이면 연걸폭탄정신을 심어주어 전투장마다에 백두의 칼바람, 자력자강의 정신이 계속 힘차게 내려치게 하는 일군이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혁명의 지휘성원이다. 《나를 따라 앞으로!》 우리 일군들의 이 웨침은 곧 대중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이끌어어나가는 기관차의 힘찬 동음이다.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혁명적으로 개선하는것이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의 요구로 나서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은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력한 추진력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헤치고 이 땅우에 선군으로 위용떨치는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을 거연히 일떠세웠으며 오늘은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인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장엄한 진군길에 들어섰다.

오늘의 현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전체 군대와 인민이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체를 비상히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으며 여기에서 일군들은 당과 대중을 련결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위치에 있다.

당의 높은 정치적인임에 의하여 중요한 임무를 맡은 일군들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인민대중을 무장시키고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 불려일으켜 우리 당의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관철하며 당의 사랑과 배려가 인민들에게 그대로 가닿도록 하여야 할 중요한 임무를 지니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충직하게 받들고 혁명의 한길을 끝까지 가며 일심단결의 천하지대본인 민심을 잘 알고 인민들의 마음속아픔과 생활상애로를 진정으로 헤아려주고 끝까지 보살펴주는 일군은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다. 이런 일군들을 통하여 우리 당과 인민의 혈연적뉴대가 깊어지고 당에 대한 인민의 지지와 신뢰는 더욱 두터워진다.

일군들의 그릇된 사상관점과 구태의연한 사업기풍, 일본새는 직권람용, 월권행위, 직무태만과 같은 직무상위법행위를 발생시키며 인민대중은 그러한 일군을 믿고 따르지 않을뿐아니라 그것은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일군들의 혁명적인 사업기풍, 일본새는 당의 두리에 인민대중을 굳게 묶어세우는가, 아니면 당과 대

중을 분리시키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은 하나로 뭉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이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는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어떻게 발양시키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일군들은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조직동원하는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히 집행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 집행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일군들의 혁명성에 달려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당하고 대중의 열성이 높아도 일군들이 사업기풍, 일본새를 혁명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당의 로선과 방침을 옳게 관철할수 없으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없다.

낮은 사고방식과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군은 사업에서 최대의 마력을 낼수 없고 인민대중과 호흡을 같이할수 없으며 그들을 사회주의건설에로 조직동원할수 없다.

일군들의낮은 사상관점과 뒤떨어진 사업기풍, 일본새로부터 발생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는 당과 국가, 사회와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게 되며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떨어뜨린다.

일군들의 옳은 사상관점과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사업기풍, 일본새는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활력을 부어주는 송풍기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대는 전진하고 현실은 끊임없이 발전한다. 새로운 관점, 새로운 높이에서 진취적으로 사색하고 대담하게 창조하는 정열가, 완강한 실천가가 되는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일군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사업기풍과 일본새이다.

일군들의 실력의 높이이자 자기 단위의 실적의 높이, 창조의 높이이다.

최근년간 생산공정들을 현대화, 과학화하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린 수많은 공장들의 경험이 이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유능한 작전가, 숨씨있는 지휘관의 특기는 무슨 일이든지 혁신적안목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창발적으로 하는데 있다.

일군들은 경직된 사고방식과 낮은 틀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며 당의 요구와 현실적조건에 맞게 방법론과 묘술을 부단히 탐구하여야 하고 적용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전형단위 일군들의 우수한 사업경험도 적극 받아들이는것이 중요하다.

옳은 방법론을 찾는데 기초하여 사업을 주도세밀하게, 통이 크게 설계하고 전투계획이 확정된 다음에는 단위별로 임무를 정확히 분담하며 과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재포치하여 모든 사업이 박력있게, 실속있게 진행되도록 하는 일군, 맡은 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에서 늘 일감을 찾아쥐고 뛰고 또 뛰는 일군, 언제나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사업하며 일단 시작한 일은 폭풍처럼,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단숨에 해제끼는 일군이 오늘의 총진군길에서 실적을 올릴수 있다.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혁명적으로 개선하는것이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의 요

구로 나서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기때문이다.

오늘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인 위성발사와 자위적핵억제력을 결코들면서 그 무슨 제재놀음을 벌려놓고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허물어보려고 비렬한 모략책동을 집요하게 벌리는 한편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하여 경제봉쇄와 무모한 침략전쟁연습에 미쳐날뛰고있다.

오늘의 복잡한 정세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 착취사회의 낡은 사상잔재를 부식시킬 수 있고 사상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일부 일군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신심을 잃고 맡겨진 임무수행과 생활에서 자본주의적생활방식에 오염될수 있는 조건을 조성할수 있다. 때문에 일부 일군들속에서 사상적으로 동요하고 안일해이하게 생활하거나 호강스럽게 지내려고 하면서 부닥치는 난관을 자력자강의 혁명정신으로 뚫고나갈 대신 조건타발만 하면서 맡겨진 임무를 태만하는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

온갖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앞채를 메고나가야 할 일군들속에서 나타날수 있는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좀먹고 사회주의건설을 방해하는 위험한 독소이다.

이것은 지난날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일군들의 사업기풍, 일본새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소홀히 한 결과 일군들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가 만연되고 나아가서 사회주의가 붕괴된 현실이 잘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개선하는것은 실무적인 문제이기 전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키느냐, 또다시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로 된다.

패배주의, 보신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가로막는 주되는 장애물이다. 위대한 사상과 정신으로 만난을 박차고 계속혁신, 계속전진, 련속공격해나가야 하는 오늘날 일군들이 낡은 사상관점과 결별하지 못하면 자기 사업에서 최대마력을 낼수 없고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할수 없게 된다.

한몸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우려는 높은 자각은 우리 일군들이 당정책관철의 길에서 늘 심장깊이 새기고 실천활동에 구현해야 할 참된 삶의 요구이다.

일군들은 몸이 열조각, 백조각 나도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고야 말겠다는 결사의 정신으로 충만되어야 한다. 그래야 아무리 조건이 어려워도 패배주의, 보신주의가 생겨날수 없고 형식주의, 요령주의, 안일해이와 같은 잡사상이 침습할수 없다.

오늘날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천만금보다 더 귀중한것은 생ন길과 진창길도 앞장에서 헤치고 사지판에도 먼저 뛰어들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하여도 당이 바란다면 그것을 다름아닌 자기자신이 해야 할 전투과업으로 간주하고 끝까지 해제끼는 투신력이다.

해마다 《이채어경》의 희한한 사회주의선경을 펼치고있는 인민군대수산부문 일군들의 혁명적사업기풍, 일본새가 바로 그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당의 크나큰 신임을 심장에 새기고 사업기풍과 일본새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킴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어나가야 할것이다.